

여성 HIV에 취약하다

사회적 역학적 측면

::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에이즈정책관리과 연구관

*



특히 임신과 에이즈

여성감염자의 수가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고, 아프리카·선진국에서의 여성 에이즈 감염률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UNAIDS는 올해 주제로 '여성과 에이즈'로 정하고 전 세계적인 관심과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은 왜 남성에 비해 에이즈에 취약한 것인지 사회적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자.

'에이즈'라는 질병은 1981년 첫 보고 이후 인류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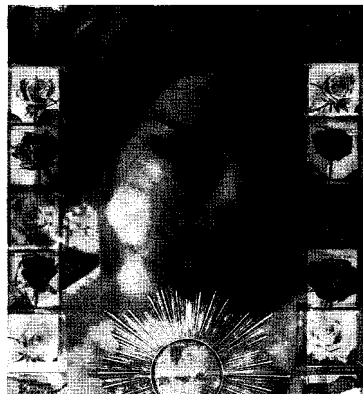
UNAIDS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HIV/AIDS 감염자가 4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만 해도 3백만 명이 넘는다. 성인(15세 이상 49세 이하)의 HIV/AIDS 감염은 약 2천7백만 명으로 이중 여성 감염자수는 50%를 차지하여 여성의 에이즈 감염이 심각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임신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수직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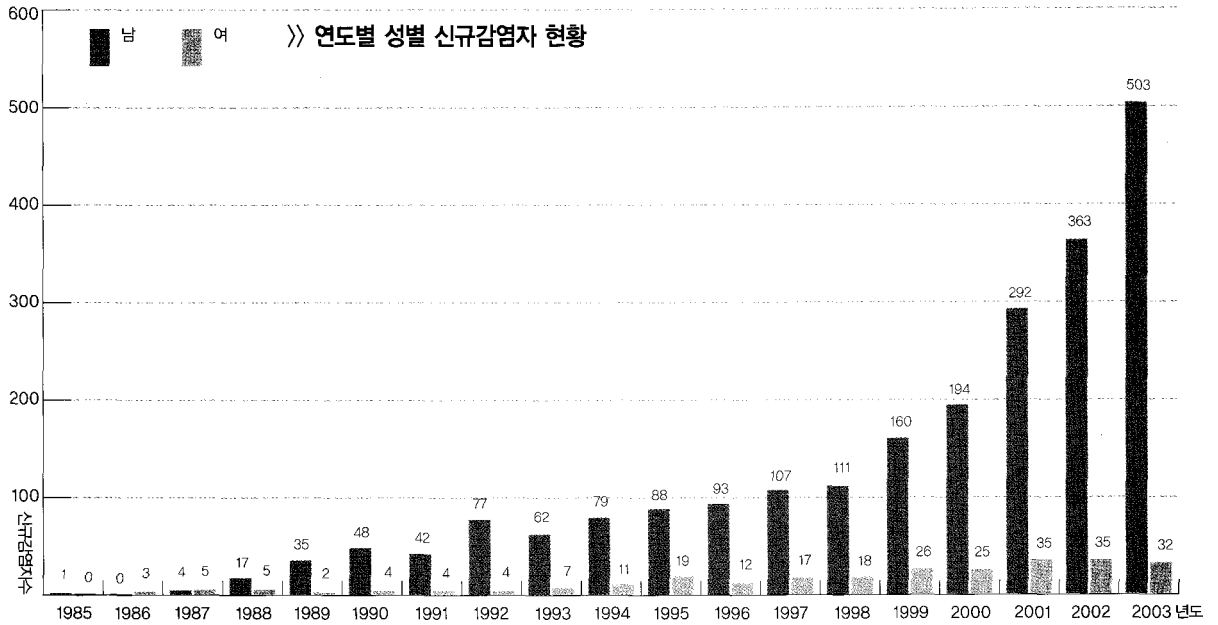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임신 여성의 에이즈 감염률이 스와질랜드 39%, 보츠와나 32%, 남아프리카공화국 24%, 케냐 22%, 나미비아 18%, 짐바브웨

18%, 말라위 1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에이즈 감염 임신부의 25%에서 수직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UNAIDS는 2004년 세계에이즈캠페인 주제를 "여성고 에이즈 Women, Girls, HIV and AIDS"로 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감염자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세계보건 기구에서는 에이즈의 치료접근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5년까지 50개국의 3백만 감염자에게 에이즈치료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3 by 5'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여성들은 에이즈감염에 취약하다. 수백만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식 기능이나 에이즈와 성병의 전파경로, 예방법에 대하여 무지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콘돔 사용과 같은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관찰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에이즈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에게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취약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여성 감염경로, 예방법 몰라

UNAIDS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에이즈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하며 그 이유로 생물학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UNAIDS, 1997).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의 감염이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의 감염보다 2-4배 높은 확률을 갖는다고 한다. 이는 남성 분비물에서의 바이러스 농도가 여성의 분비물에서보다 높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 넓은 부부의 접막이 상대방의 분비물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가 덜 성숙하고 질분비물이 적어서 에이즈 감염위험이 더 높다. 성병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에이즈 감염위험을 10배 정도 증가시키는데 여성의 1/2에서 4/5에서는 성병에 관한 자각증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높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여성들은 에이즈감염에 취약하다. 수백만의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식기능이나 에이즈와 성병의 전파경로, 예방법에 대하여 무지하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성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콘돔 사용과 같은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에이즈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에게 친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취약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취약점의 예방을 위하여, 그 취약점들은 더욱 높듯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2,540명의 감염자가 보고되었다. 2003년 한 해 동안 535명의 신규감염자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감염경로가 밝혀진 경우의 40.3%가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이성간 성접촉이 국내 주요감염경로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5.1%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의 콘돔사용률이 12%로 낮아 향후 국내에서의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 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말 현재 누적감염자 2,540명 중 10.4%인 264명이 여성감염자로서 남성감염자가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까지는 국내 여성에서의 에이즈 감염은 고위험군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이성간 성접촉을 통한 국내 에이즈 확산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성에서의 에이즈 감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 임신부의 에이즈 스크리닝 검사 활성화, 여성의 콘돔사용에 대한 인식도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요구된다.